

미국 대학의 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활용 사례

문혜정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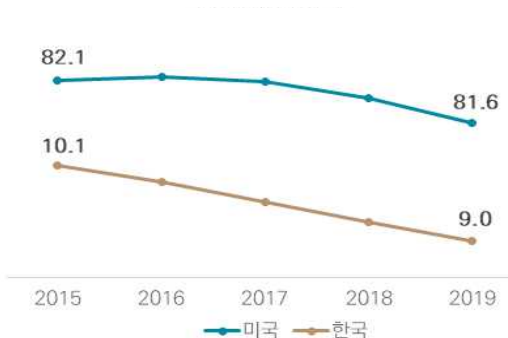
요 약

미국의 신생 보험회사 Degree Insurance는 대학 졸업 후 5년간 전공별 평균 소득을 보장해주는 ‘아메리칸 드림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기관 고객을 모집 중임. 한국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해진 시점인데, 이를 위해 보험을 활용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지난 10년간 대학교 학부 등록생 수가 19세 이하 인구 감소세보다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여파까지 더해져 2020년 가을 신입생 등록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미국의 19세 이하 인구수와 대학교 학부 등록생 수는 2011~2019년 동안 각각 연평균 0.2%, 1.2%의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대학 학부 등록생의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그림 1, 2〉 참조)
 - 대학교 학부 등록생 수 감소는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의 인구통계학적 원인과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한 대학 진학 포기·중퇴의 경제적 원인, 그리고 고등교육 투자 대비 예상수익 등에 기인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미국 전체 대학교 학부생 및 해외유학생 등록은 전년 대비 각각 4.4%, 14.9% 하락하였고, 특히 신입생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¹⁾ 향후 대학교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1〉 19세 이하 인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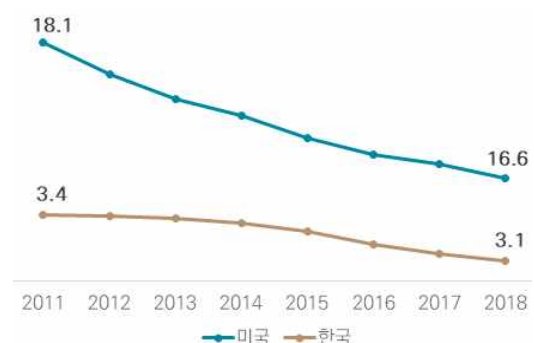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한국 통계청 인구 총조사

〈그림 2〉 대학교 학부 등록생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한국 교육통계서비스(KESS)

1)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Research Center(2020. 11), "Stay Informed with the Latest Enrollment Information"

-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교 진학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함인데, 실제소득은 졸업 시의 거시경제 여건 및 취업시장 상황에 좌우되므로 졸업 후의 기대소득과 실제소득 간에 격차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함
 - 학자금 부채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학위 취득으로 인한 보상은 졸업 및 취업 후에 발생하므로 대학 진학을 결정할 시기에는 졸업 후 고임금 직종 취업과 높은 기대소득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움
 - 특히 코로나19로 대학이 캠퍼스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커짐
- 미국의 신생 보험회사 Degree Insurance는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가치를 보장하고, 대학에게는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졸업 후 5년간 전공별 평균 소득을 보장해주는 ‘아메리칸 드림 보험(American Dream Insurance)’ 상품을 개발하고 기관 고객을 모집 중임²⁾
 - 대학(또는 주, 연방정부)이 학부 신입생을 위하여 아메리칸 드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³⁾를 납부하면 졸업생에게 졸업 후 5년간 학교 및 전공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평균 소득을 보장함
 - 보험금은 보장기간(졸업 후 5년)이 끝나는 시기에 누적 지급하며, 5년간 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⁴⁾하고 실업 상태⁵⁾일 경우에는 전액 지급함
 -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입학 후 6년 이내에 졸업해야 보장대상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 대학원 진학, 군 복무, 선교 봉사, 자원 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일시 중지됨
 - 해외 취업, 지분 1% 이상의 스타트업 취업 등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음
- 한국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학 진학률 하락 추세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해짐
 -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초로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대학 진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며, 코로나19의 여파까지 더해져 등록률 하락, 기숙사 수익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2011년 이후부터 대학교 학부 등록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인구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지속성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그림 1, 2〉 참조)
- 상기 미국의 사례는 민간보험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을 보장하여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시도로 평가됨

2) 현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021년 동안 더 많은 주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Degree Insurance 홈페이지 및 Forbes(2020. 12. 13), “College Students: Degree Insurance May Be The Next Big Thing Coming Your Way”를 참조함)

3) 보험료는 학교 및 전공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당 \$1,000~\$4,000 수준임

4) 보험회사에 연방세금보고서, 급여 및 세금신고서(W-2) 등을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하면 보장한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

5)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실업보험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